

목적을 잃으면 결과도 없다

목적이 이끄는 금식기도

본문 · 누가복음 5:33~39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는 화려한 개인 기량보다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공동체 정신’과 목적에 맞춘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슈팅이나 드리블이 아무리 화려해도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 수련회를 40일 앞두고 오늘부터 영적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목적을 잃으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1 그들은 왜 금식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속죄일의 금식, 국가적 재난을 슬퍼하며 지키는 연 4회의 국가적 금식,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주 2회의 관습적 금식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금식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 하에 있던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민족의 독립을 기원하는 금식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심지어 테러를 일으켜 로마군에게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려 했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예수님께서 민족 봉기를 일으키려는 커녕 세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계시니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들이 금식을 두고 시비를 건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치적 성향’**과 **‘노선’**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독립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눅 5:34-35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약혼식을 치른 신랑이 신부의 집에 함께 있는 동안은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신랑이신 자신이 와 있는 타이밍이므로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이 믿던 성경의 예언 속 메시아는 ‘영원히 다윗의 왕좌에 앉아 계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 구원자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빼앗겨야만) 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3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신랑을 빼앗긴 타이밍입니다. 즉,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금식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우리 더블유교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입니다. 이 드라이브가 걸리면 방언, 치유, 축사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극심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휩쓸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타락 이후 우리의 구조는 육신이 영과 혼을 지배하는 어그러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이 혼과 육을 넉넉히 다스리는 질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포탈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벤져스에서 포탈이 열리면 쏟아져 들어오듯,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 때 천사들이 돕고 하늘의 능력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적인 세력을 죽여야 합니다.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절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뒤떨어진 약한 짐승을 노립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영적 흐름에서 이탈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오래된 관성과 습관이라는 낡은 부대를 버리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스스로 스크린 타임을 점검하시고, 집 안을 청소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 기도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4 방향이 어긋난 금식과 드라이브의 위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기도, 말씀, 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똑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마쳤다는 종교적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예배와 기도를 마친 후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내 여가를 즐겨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공로를 쌓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세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부디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 받은 존재인지,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영적 거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실체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결국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영적 거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실체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FOR OUR GROUP

함께 나누는 적용 질문

Q1

말씀 듣기 전 나의 삶

오늘 말씀을 듣기 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나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진정한 목적(하나님과 만남)은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던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Q2

말씀을 통한 깨달음

오늘 선포된 말씀 중 특별히 어떤 구절이나 메시지를 통해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었나요? 내 안에 영적인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던 모습이나,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Q3

변화된 결단

이 말씀을 받고 난 후,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40일간 진행되는 영적 드라이브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미디어 금식'과 나만의 '골방 기도처 마련'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결단하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